

제 목 : Ballance Rolling

작 가 : 강목

날 짜 : 2022.8.5(금) - 9.1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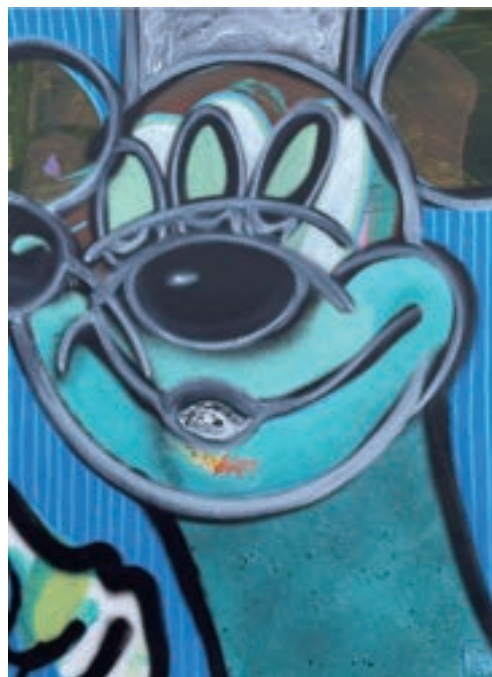
문 의 : 양유진 E-mail : carinofficial@naver.com

Tel : 051-747-9305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달맞이길 65번길 154

CARIN은 뜨거운 8월의 여름, 강목 작가의 [Balance rolling] 展을 오픈한다. 이번 전시에서 강목 작가는 오늘을 담은 초상을 표현한 투데이시리즈 today 를 통해 관계의 다양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작가와 닮은 동글동글 얼굴이 겹쳐 있는 동그리 시리즈를 통해 관계속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한다.

투데이시리즈 today 는 '영원을 향해가는 순간의 초상'이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데, 작가는 일련의 초상을 통해 연속적인 시간의 스펙트럼 속에서 다양하게 존재하는 관계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어제가 오늘이 되고, 오늘이 내일이 되는 영원의 시간 속에서 관계는 찰나의 점으로 존재하며 영원한 약속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작가는 인간 본연의 성품 그 자체를 포착하고자 곳곳에서 피어나는 의문을 조형적 언어로 표현한다.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길 희망하는 무의식속의 자아는 실존하는 자아를 타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존재 자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한다. 정면, 측면 등 다각도의 얼굴 표정이 한 화폭에 겹쳐 보이고 몇몇 작품에서는 동그란 귀가 보이는 미키마우스의 형태가 등장하기도 한다. 자신도 모르게 행해져 온 모든 행동과 습관들을 생각하며 이미지화 한다. 하나의 화면 속에 상상계와 상징계, 실재계의 자아가 동시에 존재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Today 시리즈는 종이 위에 아크릴물감, 스프레이, 매직, 색연필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작업하였다. 다듬어진 라인으로 세밀하게 표현하기도 하였고 즉흥적인 손 드로잉, 붓을 던지거나 물감을 튀기는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관계에 투영된 자신의 모습, 언어적으로 고착화된 자아, 그리고 실존하는 자아에 대한 의문들을 조금씩 다른 조형언어로 하나의 화폭에 등장시켰다. 조금씩 다른 조형언어로 하나의 화폭에 등장시켰다.



Today, 50x60cm(12호), mixedmedia on paper, 2022



Balance rolling, 162.2 x 112.1cm, mixed media on canvas, 2022

동그리 시리즈에서 동그리는 작가 자신이자 하나의 symbol로 역할한다. 작가가 설정한 최소한의 기본단위가 바로 동그라미이다. 동그라미가 겹쳐지는 교집합의 과정에서 서로 바라보는 눈의 방향은 주고받는 사랑의 방향이다. 이들은 가족의 사랑, 연인의 사랑, 친구의 사랑, 남매 자매와의 사랑이 될 수 있다. 동그리들이 쓰고 있는 각기 다른 모자들은 다양한 직업, 종교들이 결국은 모두 연결되어 있음을 이야기한다. 작가는 오브제 위에 드로잉 후 붙이거나 노트 위에 한 에스키스 작업을 그대로 콜라주 형식으로 붙이기도 하고 자신만의 드로잉 감각과 색감, 그리고 위트를 담아 표현하였다. 동그리는 헛바닥을 내미는 등 장난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작가는 이 시리즈에서 의도적으로 붓질을 노출시키며 회화적인 느낌을 가미한다.



Balance rolling. 80.3x116.8cm (50), mixed media on canvas, 2022



상세 이미지컷

### <작가 노트>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길 희망하는 나는 우리가 자라며 묻는 많은 것들의 겹을 벗겨내며 작업한다. 알을 깨고 아브로 사스로 나아가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지만 그러기 위해서 내게 묻은 요소들을 과감히 인정하고 곳곳에서 피어나는 의문에 이미지들로 작업을 채워나간다. 때론 씩씩지고 때론 벗겨진다. 간결한 궁극의 표현을 추구하며 나아가지만 현재로선 그럴 도리가 없다. 아직 내게 많은 것들이 묻고 쌓여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시대를 대변한다거나 그 시대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자체가 아름다운 예술이라 생각하고, 아주 넓고 다양한 곳에서부터 내가 있기까지의 탐구는 늘 나를 날갯짓 하게 만든다. 그 자유의 우물과 상념의 바다를 오가며 오늘도 극도의 예민한 정신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다 비로소 보이는 작업으로 표출해 내며 산다. 하루를 씹어 삼켜낸 세월을 아름답게 싸 내어 여러 사람들과 공감대를 이루며 살아내는 것이 현재 내겐 유일한 지성 행위인 것을 기억하자.

강목 (1988)

동아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solo

2022 <BALANC>, GGTI, Jeju

2021 <Crowd Portrait>, gallery collectors, Jinju

2019 <Cheapy peers>, gallery middleman, Busan

2018 <Haeundae bull>, CARIN, Busan

2017 <Make-up series>, gallery middleman, Busan

2014 <The dog-Basic instinct>, space um, Busan

2013 <Dissatisfaction>, gallery bom

2012 <Moves like a dog>, gallery ccc

Group

2022 <Alter Ego>, Noblesse Collection, Seoul

<경쾌한 자서전>, Dohingart, Seoul

<사유의 베일>, Ilwoospace, Seoul

<Friends>, CARIN, Busan

2021 <CLINIC>, SCRAB, Busan

<Let's Get It : 놀아보자>, Art gg gallery, Seoul

<Middleman Post>, middleman gallery, Busan

<Summer Vibes>, KT&G 상상마당, Busan

2020 <Santa>, gallery middleman, Busan

<FUN>, studio purefive, Busan

2018 <A land of pigmies>, gallery middleman, Busan

2017 <From nature>, 해운대구역사, Busan

2016 <The first collection>, CARIN, Busan

2015 <Art safari>, gallery lotte, Busan

<Blue chip>, gallery honggang

<동물원가는길>, gallery lotte, Busan

